

## 중기 청소년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에측요인의 탐색

김경숙\* · 남현우\*\*

###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중기 청소년 탈비행 정상과정에서 사회통제요인(부모애착, 부모감독)과 인지요인(주도성, 비난확신)의 탈비행 단기효과와 인과적 우선성을 알아보는 데 있었다. 탈비행은 비행항목수의 역동적 감소 과정으로 정의하였고, 중학교 2학년 청소년 3,449명에 대한 4년 종단자료에 잠재성장모형을 적용하여 탈비행 단기효과를 설명하고자 동시효과모형(contemporaneous effects model)을 검증하였다. 연구결과, 중2~고2까지 4년 동안의 비행계측은 빠르게 감소하다가 그 감소폭이 점차 작아지는 이차함수로 확인되었다. 한편 탈비행 단기효과는 비난확신이 높을수록 탈비행을 저해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인지모형이 사회통제모형 보다 우수한 탈비행 단기에측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탈비행 축진을 위한 실천적 전략은 비행청소년의 주관적 인지변화의 습득 후 이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객관적 사건(예, 부모애착, 부모감독)을 제공하는 순서로 수립 할 필요가 있다.

주제어 : 탈비행, 사회통제요인, 인지요인, 잠재성장모형, 동시효과모형

\*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소장, 제1저자

\*\* 순천향대학교 인문대학 교육과학부 교수, 교신저자, namhw@sch.ac.kr

## I. 문제제기

전통적인 범죄경력연구는 비행이나 범죄행동의 개시와 지속에 관한 설명이었다. 사람들은 왜 비행을 시작하고 왜 비행을 지속하는가에 주목했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부터 점차 비행개시나 유지로부터 왜 그들은 궁극에는 비행을 중단하게 되는지의 탈비행(desistance from crime)으로 관심의 초점이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탈비행은 재비행이나 성인비행으로의 연속성을 감소시키고 재범 이해를 돕는 중요한 주제이다. 따라서 일단 탈비행이 구별된 차원으로 인식되기만 하면 탈비행 설명이론들은 활발하게 생성되었다(Paternoster & Bushway, 2009; Maruna & Farrall, 2004; Flynn, 2010). 그러나 여전히 탈비행 기저의 인과과정을 설명하는 예측요인이나 발달기제는 거의 알려지지 않고 있다(Healy, 2010; Piquero et al., 2001; Kazemian, 2007). 탈비행의 주요 이론들은 거의 모든 비행자들이 청소년 후기나 성인기 초기인 늦은 20대까지는 탈비행 한다는 정상이론(normative theory)을 수용한다(Flynn, 2010; Sampson & Laub, 2003; Blumstein & Cohen, 1987). 정상이론에서는 연령(age)을 다른 어떤 것이 발생하지 않는 한 탈비행의 가장 강력한 기본 요인으로 간주한다. 그러므로 변하지 않는 조건인 연령이 과연 다른 어떤 요인과 연합하여 탈비행에 영향력을 미칠 것인지는 탈비행의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고 이들 요인들 간 연합을 밝히는 것은 탈비행 기저과정의 이해를 촉진시킬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연령과 연합하여 탈비행 단기효과를 나타내는 탈비행 예측요인은 무엇이며 나아가 이들 예측요인 간 인과적 우선성을 밝히고자 함에 있다. 이에 탈비행이라는 행동변화가 외부의 객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인지, 혹은 개인 내적 주관적 요인에 의한 영향인지에 일차적인 관심을 두고 최근 논란의 핵심에 있는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회통제(예, 부모애착, 졸업, 고용, 친사회적 파트너, 결혼)는 탈비행의 주요한 예측요인으로 지지되어 왔지만(Sampson & Laub, 1993), 사회통제요인에 비행 친구가 함께 연합되었을 때는 더 이상 탈비행 효과를 일으키지 않는다는 Warr(1998)의 주장을 시발점으로 탈비행에 미치는 사회통제요인의 선두 위치가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이후 사회통제요인의 탈비행 단독효과성은 흔재되어 왔고 현행 추세는 사회통제요인의 실제적인 효과는 다른 요인들과 함께 고려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수렴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통제요인이 비록 홀로 탈비행을 촉진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하더라도 여전히 그 강도나 질적 영향력은 중요하다. 사회통제 요인이 후기 청소년(emerging adult)의 단기효과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지만, 소량이라도 탈비행의 장기효과를 나타낸 바 있다(Morizot & LeBlanc, 2007).

이에 불완전하지만 중요한 사회통제에 개인의 인지요소(예, 문제해결기술, 대행자 정체성, 친사회적 가치)를 결합시킨다면 과연 탈비행의 필요충분조건으로 작용될 수 있는지의 연구 주제는 탈비행 미래 연구방향의 하나로 제시될 만큼 가치 있을 것이다(Flynn, 2010; Healy, 2010; Kazemian, 2007). 만약 환경적 사건이 먼저 발생하고 인지적 변화가 일어남으로써 탈비행에 도달한다면, 그런 환경적 사건의 발생을 격려함으로써 비행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부모와의 관계증진, 직업훈련기술, 결혼상담 등을 활성화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지변화가 먼저 발생 한 후 환경적 사건이 일어나서 탈비행에 도달한다면, 비행자들에게 적절한 인지기술 및 긍정적 정체성 변화를 돕는 개입노력이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그러나 인지 변화와 환경변화 및 탈비행 간의 상호작용은 매우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올바른 연구방법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Healy, 2010).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 간 탈비행 단기효과와 우선성을 탐색하는데 적절한 동시효과모델(contemporaneous effects model)을 잠재성장모형으로 적용하였다. 동시효과모델은 종단자료를 가지고 특정 시기별로 특정요인의 탈비행 단기효과를 탐색하기에 적합한 가설이다. 중2~고2에 이르는 중기 청소년은 신체적, 심리적 다양한 변화를 겪는 발달시기이므로 특정 시기의(단기적) 비행가담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빠르게 변화하는 중기 청소년의 탈비행 예방에 실효적일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탈비행 설명모델을 적용하였다(Morizot & LeBlanc, 2007; Kazemian, 2007; Mulvey et al., 2004; LeBlanc & Loeber, 1998). 이 설명모델은 성숙(혹은 자기통제)이론, 사회통제이론 그리고 인지(혹은 합리적 결정)이론 등을 포함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중기 청소년의 생활특성을 대표한다고 본 사회통제이론(부모 감독, 부모애착)과 인지이론(주도성과 비난확신)을 사용하였다. 탈비행에 미치는 환경적 요인과 인지적 요인 간 상대적 영향력의 비중은 미해결 과제 중의 하나이다. 개인의 인생에 주어진 사건과 자신이 누구인지를 지각하는 마인드의 변화를 견주어 탈비행 예측요인을 규명하는 것은 탈비행 개입을 정교화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라 판단된다. 특히 예측력의 순위가 정해진다면 중기 청소년 탈비행을 위한

개입전략은 구체성과 실효성을 띄게 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기 청소년 탈 비행에 미치는 단기적 예측요인의 효과와 우선성을 알아보려고 한다. 구체적으로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기 청소년 탈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단기적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탈비행에 대한 사회통제요인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가?

셋째,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 중 탈비행에 더욱 강한 예측력을 나타내는 예측요인은 무엇인가?

## II. 이론적 배경

### 1. 탈비행의 이해

#### 1) 탈비행 정상과정 : 탈비행의 전제는 무엇인가?

최근 종단연구를 통한 발달적 접근의 비행이론에서는 거의 탈비행 정상과정을 고려하고 있다. 정상과정은 연령이 들면 자연스럽게 탈비행이 예측된다는 것으로 두 가지 견해로 대별된다. 하나는, 탈비행은 연령이 들어가면서 자연발생적인 성숙과 함께 나타나는 인생과정의 현상으로 보는 것이다. 이러한 예로, 사람은 연령이 들어감에 따라 비행행동이 감소한다는 주장과 연령 증가에 따라 시간, 장소 및 사회적 집단에 걸쳐 나타나는 비행 감소는 보편적으로 유지되는 사회적 사실이라는 주장, 그리고 탈비행은 비행자의 자생적인 회복과 성숙으로 달성된다는 연구들이 있다. 이러한 견해는 나이가 들면서 신체적, 심리적으로 소진되기 때문에 생물개체론적(ontogenetic) 성숙과정으로 불리기도 한다. 이와 달리, 탈비행은 비행자의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비행의 원인이 되었던 많은 영향력들도 변하므로 일어날 수 있다는 관점이 있다. 청소년 후기에는 비행의 유발요인들은 감소되는 반면, 순응성을 격려하거나 비행을 단념시키는 요인들이 훨씬 더 우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연령은 다른 요인들과 연합하여 상호의존효과를 나타낸다(Wilson & Herrnstein, 1985). 연령과 연합한다

는 관점은 사회통제이론, 인지이론(혹은 합리적선택이론), 학습이론, 긴장이론과 같은 탈비행 주요이론들의 생성 기반을 마련하였다.

## 2) 사회통제이론과 인지이론 : 탈비행 측정에 유용한 변인은 무엇인가?

사회통제이론(Hirschi, 1969; Sampson & Laub, 1993, 2003)은 개인이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에 관여할수록 탈비행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초기 사회유대이론(Hirschi, 1969)과 후기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Sampson & Laub, 1993, 2003)을 포함한다. 사회유대는 전통적인 타인과의 강한 애착, 사회제도에의 관여, 전통적 규범이나 가치에 대한 신념 등을 탈비행 예측요인으로 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은 연령에 따라 변화되는 사회적 영향력(예, 결혼, 고용, 종교 등)을 탈비행 예측요인으로 보았다. 즉, 연령단계에서 주어진 전통적인 사회적 역할(예, 고용, 결혼이나 동거, 부모됨 등)이 사회유대를 강화시켜서 탈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Loeber과 LeBlanc(1990)는 후기 청소년 탈비행 예측요인으로 작용되는 환경적 변화는 비행친구의 감소 및 친사회적 친구의 생성, 결혼이나 친사회적 파트너의 연합, 아이의 양육, 도시로의 이동, 고용, 군 입대, 졸업 등을 들었다.

그러나 Sampson와 Laub(1993)의 연구가 이루어졌던 시기와 현재 사회는 많은 차이점이 있을 것이며 그에 따른 사회통제요인의 변화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가족의 중요성은 당시는 지금 보다 더욱 가족 중심적이었을 것이므로(낮은 이혼율) 중요한 사회유대요인이었을 것이다. 반면, 교육적 가치는 당시 보다 현행 사회에서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늦은 청소년기에는 특히 임시직, 시간제 직업이 선호되고 따라서 직업안정성은 낮아질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현재 한국에서는 정규학업을 포기하고 검정고시나 다른 대안을 선택하는 청소년들이 점점 증가추세에 있어서 탈비행에 미치는 학교변인의 중요성도 속단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와 같이 시대적, 사회적 변화를 고려한다해도 여전히 한국사회 청소년 중기에 미치는 가족환경의 중요성은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사회통제요인은 시대적 변화에도 비교적 안정적인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을 선정하였다.

다음으로 사회통제에 주관적 요인이 수반되었을 때 탈비행 효과는 어떻게 달라지는지에 유용한 인지이론을 간단히 고찰하였다. 인지이론은 최근 활발히 대두되는 이론

중 하나로 탈비행에 미치는 개인내적 역할을 강조한다. 인지이론은 탈비행의 주관적 측면인 안정적 성격특질에 관한 변인연구들과 인지적 변화과정의 우선성을 밝히려는 연구들로 나누어진다.

인지이론의 다양한 개념들이 아직 명료하게 정립되지 못하였지만, 주로 대행인(human agency), 인지(cognition), 정체성(identity)의 세 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우선, 대행인은 의도적인 자아변화의 행동을 통해서 나타날 수 있으며 변화하려는 주체의 역할을 강조한다, 예를 들어 Sampson과 Laub(1993, 2003)연구에서 결혼과 고용이 탈비행의 영향력있는 사회통제요인으로 설명된다면, 결혼이나 고용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이끌어내는데 발휘된 개인의 노력을 인지이론의 대행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노력은 개인이 대행인의 역할을 수행할 때 이루어지며 결혼과 고용의 영향력을 완벽하게 해 준다고 하였다.

둘째, 인지개념으로 비행 관련한 내적특성을 나타내는 인지성향(cognitive predisposition), 혹은 사고 스타일(thinking styles)이 있다(Kazemian, 2007; Ward, Fon, Hudson & McCormack, 1998). 인지성향은 굳은 사고(추상적 추론의 부족), 인지적 경직성(비유연성이나 협소하고 독단적인 사고방식, 모호함을 참지 못하는 성향), 형식 주의적 태도(externality; 인생사건에 대한 결정론적인 태도), 자기중심성(공감능력의 부족), 대인 간 문제해결기술의 결함, 자기중심적 가치체계 등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의 인지변인들을 포함한다. Walters(1995)는 8가지 비행적 사고유형(힘의 지향, 인지적 나태, 목표로 부터의 분산된 경향 등)을 제시하여 비행행동의 라이프스타일 이론을 개발했다. 라이프스타일 이론은 조건, 맥락, 선택 등 세 요소가 복잡하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함으로써 개인이 비행적 기회의 선택여부를 결정하고, 인지를 변경하여 결과적으로 비행적 라이프스타일로 된다고 제안하였다. 즉, 비행자는 그들의 행동과 죄책감을 합리화할 수 있는 인지적 전략을 사용한다고 제시하였다. Giordano, cernkovich and Rudolph(2002)은 ‘변화에 대한 준비성’을 나타내는 강한 동기를 탈비행의 결정적인 요소로 보았다. 그렇지만 탈비행을 원하는 많은 비행자들은 성공적인 행동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내적 자원이 부족하다고 표현했고, 변화할 수 있는 능력에 대한 확신감이 적었다고 보고하였다(Burnett & Maruna, 2004). Bandura(1997)는 지각된 자기효능감(self-efficacy)을 중요한 탈비행요인으로 보았고,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삶을 더욱 잘 통제한다고 느끼며, 더욱 좋은 심리적 웰빙을 즐

기고, 우수한 자기 결정능력으로 준비된 사람이라고 정의했다. Ludwig과 Pittman (1999)도 강한 자기효능감은 약물과 범죄에의 가담을 감소시킨 결과를 보고하였다. 이상과 같이, 내적 동기와 인생목표, 대행인의 특성, 및 자기효능감 등은 탈비행 효과 검증에 활용할 수 있는 인지적 예측변인임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체성을 살펴보았다. 정체성이론(Paternal & Boshway, 2009)에서는 비행자들은 작업정체성(working identity)을 갖는다고 가정한다. 비행자의 작업정체성은 현재 비행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비행을 저지를 사람이라는 정체감인데 이것은 생활 속에서 점점 불만족스럽게 지각된다. 특히, 현재의 실패가 미래의 실패로 이어질 때 비행자는 불만족스럽게 되고 미래에 변화되고 싶은 선망적 자아(possible self)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미래의 원하는 자아, 즉 탈비행자로서의 선망적 자아에 직면할 때는 반드시 두려움(fear)을 수반한다. 두려운 자아(feared-self)는 이대로 가다간 망쳐질 것 같은 두려움을 지각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체성이론에서는 작업정체성을 지닌 비행자들이 의도적인 자아변화를 이루기 위해 두려움은 최초의 변화 동기로 작용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체성이 변화되면 선호성, 기호, 가치의 변화가 일어나서 결국 탈비행으로 간다는 정체성 변화과정을 제안하였다. Oyserman과 Markus(1990)연구에서도 비행청소년들은 범죄인이 될 수 있다고 두려워하는 동안에는 바람직한 대안적 자아를 상상할 수 없어서 대안적인 라이프스타일을 제공할 수 없음을 발견하였다. 따라서 두려운 자아와 선망적 자아 간의 불균형의 정도는 후속 비행의 예측요인이며 선망적 자아를 상상할 수 있는 비행자들이 더욱 탈비행하기 쉬웠음을 나타내었다.

## 2. 사회통제요인(부모애착, 부모감독)과 인지요인(주도성, 비난확신)의 상호관계

앞서 살펴 본 바, 사회구조변화가 탈비행에 가장 현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비공식적 사회통제이론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처럼 인간의 행동에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것인가에 의문이 제기된다. Giordano et al.(2002)는 직업과 결혼이 탈비행을 예측하는 수준이 단지 8%에 그쳤으며, 양육애착도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유도했으나 탈

비행에 필수적인 효과는 나타내지 못하였음을 발견하였다. Evans, Cullen, Burton, Dunaway and Benson(1997)은 사회통제와 자기통제(self-control)와의 결합 시 자기통제요인이 더욱 우세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 간의 탈비행 효과 비교에 대한 비중이 커졌다(Kazemian, 2007; Flynn, 2010). 한편, 사회통제와 인지요인 간 상호관계 양상은 상호호혜적 관계(LeBlanc, 1993), 순환과정(Bottoms, Shapland, Costello, Holmens & Muir, 2004), 혼돈효과 혹은 예측할 수 없는 큰 효과(butterfly effects: Mischkowitz, 1994), 비선형 역동체제(Walter, 2002) 등으로 혼재되어 나타났다.

다음은 본 연구에 사용된 사회통제요인(부모애착, 부모감독)과 인지요인(주도성, 비난확신)의 상호관계를 살펴보았다. Giordano et al.(2002)는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은 두 개의 수레바퀴처럼 동시에 탈비행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Gunnison과 Mazerolle(2007)은 탈비행 예측변인 탐색에서 가족애착, 자녀애착의 사회통제요인은 유의미하지 않았으나, 처벌확신과 처벌의 심각성(인지요인)은 유의미하였음을 발견하였다. 비행지속자와 탈비행자 간의 특성을 탐색한 Jeffrey(2000)의 연구에서도 탈비행자에게는 부모감독, 학교애착 등 사회통제요인은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반면, Schroeder(2005)연구에서는 사회통제요인 중 고용은 유의미하였지만 정체성과 대행인의 인지요인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소년범죄자를 대상으로 횡단자료를 사용한 한영선(2010)은 친구관계는 유의미하였지만 부모애착, 배우자애착, 직업안정성의 사회통제요인은 탈비행에 유의미하지 않았음을 발견하였다.

정리하면, 탈비행에 미치는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 간의 상호관계 결과, 주로 인지요인이 중요한 영향력을 끼쳤다. 그러나 선행연구들에서는 주로 탈비행 예측요인을 밝히는데 그쳤으므로 예측력의 우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순위와 단기효과를 함께 관찰할 수 있는 동시효과모델(contemporaneous effect model)검증이 필요하였다.

### 3. 동시효과모델 : 탈비행의 단기효과와 우선성의 탐색

탈비행 정상과정을 전제로 잠재성장모형을 규명하였다. 탈비행 정상과정은 자료에 사용한 모든 개인의 전체 평균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로 측정한다. 탈비행 정상과정에서 단기효과(short-term)를 동시효과모델로 검증한 연구들은 매우 적다. 동시효

과모델은 전통적 회귀분석과 비슷하지만, 다른 예측요인들의 효과가 회석되거나 제거되지 않는다는 이점이 있다. 그림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동시효과모델은 비행(가담) 행동과 동일한 시기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의 탈비행 효과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때 예측요인은 시간의존 공변인(time-varying covariates)으로 작용되기 때문에 시점 간 상관관계를 부여하였고 특정 발달시기의 탈비행 단기효과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예측요인 간 예측력의 순위도 결정된다.

동시효과모델은 Hussong, Curran, Moffitt, Caspi and Carrig(2004)의 연구에서 약물이 특정 시기의 탈비행을 저지하는 요인임을 규명하기 위해 함정가설(snares hypothesis)이란 명칭으로 사용된 이후, Morizot와 LeBlanc(2007)연구에서도 사회통제요인과 자기통제요인 간 탈비행 단기효과 탐색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요인은 탈비행 단기효과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Morizot와 LeBlanc(2007)의 연구는 후기 청소년에 한했고 인지요인이 포함되지 않은 제한이 있다. 동시효과모델 검증을 위한 잠재성장모델은 그림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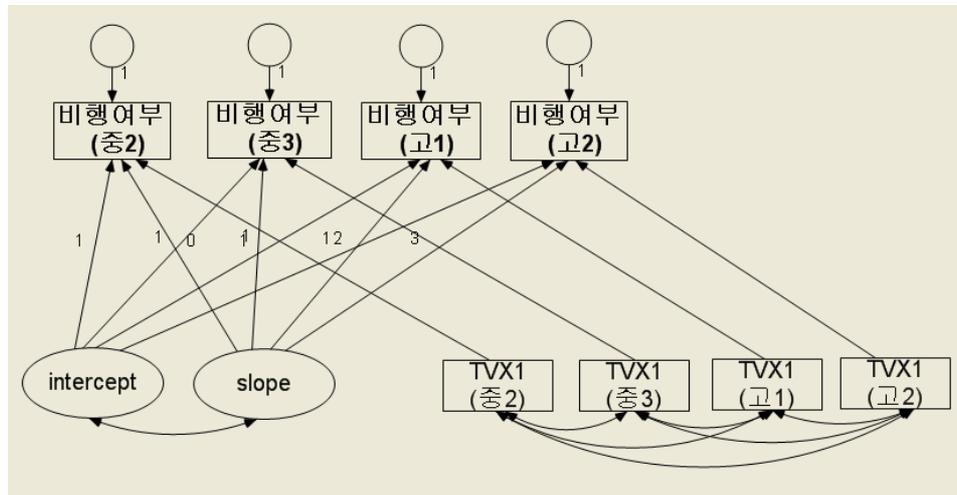


그림 1. 동시효과모델을 포함하는 잠재성장 모형

Note. 비행여부(중1)-비행여부(고2): 1차~4차까지 비행참여의 합.

TVX1: Time-Varying(X1) 예측변인들(부모애착, 부모감독, 주도성, 비난확신)

### Ⅲ. 연구방법

#### 1. 자료

본 연구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조사의 중2 패널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 Youth Panel Survey; KYPS)는 2003년도에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모집단으로 하여 층화 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방법으로 표집된 한국청소년을 대표하는 표본이다. 이 자료는 전체 3,449명의 청소년(남; 1,725명, 여; 1,724명)이 패널로 선정되어 4차년도까지 3,121명(90.5%)의 비교적 높은 표본유지율을 보였다. 본 연구목적이 중학교 2학년에서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탈비행의 중단적 변화를 살펴보고자 함에 있으므로 KYPS의 1차에서 4차까지의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 2. 측정도구

##### 1) 종속변수 : 탈비행

본 연구에서 탈비행은 청소년 중기에 다양한 비행항목(versatility)이 점차로 감소하는 역동적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따라서 탈비행 정상과정은 1차~4차년도에 이르는 비행 발달궤적을 통해 파악될 것이다. 비행은 청소년 지위비행 및 범죄행동에 포함된다. 본 음주, 흡연, 무단결석, 가출, 폭력, 절도, 금품갈취(뺑뜨기), 협박 등 8개 항목<sup>1)</sup>을 선정하였고, 비행여부 문항은 0(비행경험 없음), 1(비행경험 있음)의 이항변수로 만들어 비행 항목들의 비행여부 합산<sup>2)2)</sup>으로 정의하였다.

1) 청소년비행을 지위비행과 범죄행동으로 구분으로 노성호(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의 연구를 참조함.

2) 자기보고식 측정에서는 비행을 다양한 비행유형들의 참여여부로 정의하는 것이 비행경험 빈도수로 정의하는 것보다 신뢰성이 높다고 제시한 연구를 참조함(Hindelang, Hirschi & Weiss, 1981; Morizot & LeBlanc, 2007). 비행여부는 최소 0점에서 최대 8점까지 분포되었음.

## 2) 독립변수

### (1) 객관적요인

- ① 부모애착 : 부모애착은 부모와 자녀 간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의미한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등 6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와 자녀 간 애착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81이었다.
- ② 부모감독 : 부모감독은 자녀가 누구와 함께 지내는지 자녀의 활동과 생활 적응에 대한 지도 감독을 의미한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부모의 지도감독이 적절한 것으로 해석되며 내적 신뢰도는 .86이었다.

### (2) 주관적 요인

- ① 주도성 : 주도성은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신뢰감과 삶에 대한 주체성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도성은 자신의 결정에 대한 신뢰, 자신의 문제해결 능력에 대한 확신 등 주체적인 태도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자기효능감(Bandura, 2001)과 상통하는 의미로 볼 수 있다. ‘나는 내가 내린 결정을 신뢰할 수 있다’, ‘나는 내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나는 내 삶을 스스로 주관하며 살고 있다’, ‘나는 괴로울 때도 모든 일이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등 4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문제를 주도적으로 해결하는 자신감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71이었다.
- ② 비난확신 : 비난확신은 자신의 실수나 비행에 대해 주변 사람들의 반응이 부정적일 것이라고 확신하는 부정적 자아관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비난확신은 비행자의 불만족스런 자아관에 주목하였다. 부정적 자아가 강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잘못에 대한 타인의 부정적 반응을 더욱 쉽게 확신할 것이다. 즉, 자신은 비난받을 사람인데다 비행은 저질렀다면 주변인들로 부터 더욱 비난받을 것 같은 원치 않는 자아가 될 것 같은 두려움을 내포하고 있다고 보아 비난확신을 인지요인의 하나로 선정하였다.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이 나를 몹시 비난하게 될 것이다.’, ‘내가 만약 나쁜 일을 하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창피함을 당할 것이다.’의 2개 문항에 대해 5점 척도로 측정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비난받는(원하지 않는) 자아에 대한 두려움이 높은 것을 의미하며 내적 신뢰도는 .84이었다.

### 3. 자료분석

자료분석은 잠재성장모델(latent growth model)의 적용을 통해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진행되었다. 첫 단계는 탈비행 성장곡선을 모델링하기 위해 1차~4차에 이르는 비행에 대해 무조건모델(unconditional model)을 설정하였다. 무조건모델에서는 측정변인에서의 변화를 간명하게 설명할 수 있는 함수를 정의하고 변화에 있어서의 개인차가 유의미한지를 검증할 수 있다. 잠재성장모델에서는 두 개의 잠재성장요인(초기치와 변화율)이 포함된다. 초기치는 시점 1에서 측정된 비행의 초기치를 의미하며, 변화율은 4년간 변화패턴(속도)을 의미한다. 초기치와 변화율 모두 자료에서 추정된 평균과 변량을 갖는다. 초기치의 평균은 시점 1에서 측정된 비행의 평균을 의미하며, 초기치의 변량은 초기치의 개인차를 의미한다. 변화율의 평균은 비행에서 개인의 변화율의 평균을 의미하며, 변화율의 변량은 이러한 변화의 개인차를 의미한다(이은주, 2012). 4개의 시점에서 평균의 변화를 바탕으로 초기치와 변화율에 대해 무 변화모형과 선형모형 그리고 이차함수모형 등을 적용할 수 있다. 무 변화모형은 시간에 따른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 모형이므로 초기치의 평균과 변량만 측정할 수 있다. 선형모형은 4년 간 비행이 선형적으로 변화되었음을 가정하고 각 시점의 측정회기별 0, 1, 2, 3의 요인계수를 부여하였다. 이차함수모형은 선형변화율(linear slope)과 2차항 변화율(quadratic slope)을 포함하고 0, 1, 4, 9의 요인계수를 부여하였다. 선형변화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선형 변화를 의미하며, 2차항 변화율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비선형 변화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경쟁모델의 검증을 통해 탈 비행 정상과정이 일정하게 감소하는지(linear growth), 감소율의 변화가 나타나는지(quadratic growth)를 알아 볼 수 있다. 특히 중기 청소년기에는 학제 변화가 일어나는 중3~고1 시기에 탈 비행 성장곡선에 변화의 가능성을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성장 모델은 Amos 7.0를 활용하였으며, 패널 자료와 같이 결측치가 있는 자료를 분석에 포함할 수 있는 FIML(full information maximum likelihood) 추정방법을 이용하였다. FIML은 한 변수의 결측치가 무선적으로 발생하는 MCAR이나, 한 변수의 결측여부가 다른 변수의 값에 의해 결정되는 MAR 보다 정확하게 미지수를 추정한다(Arbuckle, 1996).

두 번째 단계는 무조건모델에 추가하여 시간의존 공변인이 설정된 예측요인들의 영향력을 알아볼 수 있도록 조건모델(conditional model)을 상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모애착, 부모감독, 주도성, 비난확신의 4가지 예측요인이 사용되었다. 만약 어떤 예측요인의 효과가 유의미한 양(+)의 계수로 나타난다면 높은 수준의 비행과 관련되었다고 보아 정상적 탈 비행을 억제하는 예측요인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반대로 유의미한 부적(-) 계수를 보이면 그 시기의 탈 비행을 촉진하는 예측요인임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조건모델단계에서는 탈 비행의 단기효과를 예측하는 요인을 밝힐 수 있는 동시효과모델 검증이 성립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특정시기의 탈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들 간 모델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모델1은 부모애착, 모델2는 부모감독, 모델3은 주도성, 모델4는 비난확신의 단독모형으로 구성하였고, 모델5는 부모애착, 부모감독의 사회통제요인, 모델6은 주도성, 비난확신의 인지요인으로 구성하였고, 모델7은 모든 변인들을 다 포함하였다. 이들 예측요인들의 효과의 유의미성은 .05수준에서 검증하였으며 모델적합도 평가는  $\chi^2$ , TLI, CFI, RMSEA 등 통계지수를 사용하였다.  $\chi^2$ 검증은 표본크기에 과도하게 민감한 경향이 있으므로  $\chi^2/df$ 를 제시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설명된 전체변량에 근거한 CFI와 오차공분산의 합에 근거한 RMSEA를 활용하여 최적모델을 선정하였다. CFI는 .90보다 클 경우, RMSEA는 .08보다 적을 경우를 좋은 적합도로 보았다(Hu & Bentler, 1999). 특히, 잠재성장모델은 정교하게 구조화된 모델이므로 오차에 근거한 RMSEA 적합도 평가가 적절하다.

## IV. 연구결과

### 1. 기술통계 : 비행여부의 합

중2에서 고2에 이르는 4년 동안 청소년의 비행여부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치를 살펴보았다. 표 1에 전체 청소년들 중 지난 1년 간 1회 이상의 비행경험이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여부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였다. 비행여부의 평균은 중2~중3에 걸쳐 감소하다가 중3~고2에 걸쳐 다시 상승세를 보였다. 그러나 중3~고2까지 상승세는 중2의 시작점에 비해 작았다. 네 시점에서 비행여부의 평균은 비행이 시간이 흐르면서 단순히 선형적으로 감소하지 않을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표 1

비행여부의 기술통계량

측정회기	N	최소값	최대값	Mean	SD
1차년도(중2)	3,449	0	8	.78	1.25
2차년도(중3)	3,188	0	8	.62	1.13
3차년도(고1)	3,114	0	8	.63	1.00
4차년도(고2)	3,121	0	7	.72	.99

### 2. Unconditional Model의 검증

탈비행 발달궤적의 변화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무조건 모델을 검증하였다. 먼저 비행여부의 종단적 변화에 대한 무조건 모델을 설정하기 위해 무 변화모델, 선형 변화 모델, 이차함수 변화모델을 비교하였다.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이차함수 변화모델이 가장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최적모델로 판단하였다.

표 2  
비행여부의 발달궤적에 대한 경쟁모델 적합도 비교

경쟁모델	$\chi^2/df(p)$	TLI	CFI	RMSEA
무 변화	51.50(.000)	.85	.88	.12
선형 변화	29.20(.000)	.91	.95	.09
이차함수 변화	3.44(.064)	.99	.99	.02

표 3은 최적모델인 이차함수 모형 성장요인의 모수추정치와 표준오차를 제시하였다. 비행여부의 초기치는 중2에 평균 .78의 비행가담 정도를 나타냈고 1년마다 .19 정도씩 비행가담이 점차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초기치와 변화율의 변량도 모두 유의하게 나타나 중2 출발시점에서의 비행가담율의 개인차와 선형으로 감소하는 변화율에서 개인차가 모두 유의미하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차항의 계수는 .06으로 나타났고 비행가담율이 빠르게 감소하다가 그 감소폭이 점차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초기치와 변화율 간은 부적 상관을 보여( $r=-.66, p<.001$ ) 1차년도에 비행참여가 높을수록 비행의 감소가 빠르게 진행됨을 알 수 있다. 초기치와 이차항 변화율 간은 정적 상관으로 나타나( $r=.46, p<.001$ ) 1차년도에 비행참여가 높을수록 비행 증가 속도가 빨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비행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비행 감소나 재경험이 빨리 진행됨을 의미한다.

표 3  
Unconditional Model의 검증 결과 : 이차함수 변화모형의 성장요인 추정치

성장계수	초기치	변화율 (Linear Slope)	이차항 변화율 (Quadratic Slope)
평균	.78(.021)***	-.19(.02)***	.06(.01)***
변량	1.30(.076)***	.65(.08)***	.04(.01)***
상관	초기치-변화율		-.66***
	변화율-이차항		-.90***
	초기치-이차항		.46***

Note. ( )안은 표준오차임. \*\*\* $p<.001$ , \*\* $p<.01$  \*\*\* $p<.05$

### 3. 동시효과모델의 검증

다음은 탈비행 정상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효과모델을 검증하기 위해 조건모델이 설정되었다. 조건모델은 매 시점 간 공변량을 부여한 시간-의존 독립변수들을 투입하여 구성하였다. 앞서 비행여부의 최적 적합모델을 적용하였으므로 탈비행에 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과 상대적으로 예측력이 강한 요인을 검증할 수 있었다. 시간의존 독립변수들은 사회통제요인(부모애착, 부모감독), 인지요인(주도성, 비난확신)이었고 이 요인들을 조합한 7개의 모델이 검증되었다.

표 4는 7개 모델의 모수추정치, 표준오차 및 적합도 검증 결과가 제시되었다. 우선 예측요인이 하나씩 조합된 단독모형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독립적으로 투입된 부모애착은 중2~고2에 이르는 네 시점 모두 탈비행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연합되었음을 보여 주었다(모델1). 즉 부모애착이 높을수록 탈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감독의 단독모형 또한 4시점에서 모두 부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부모감독이 높을수록 탈비행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모델2). 주도성의 단독모형은 네 시점에서 모두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모델3). 한편, 비난확신의 단독모형은 중2~고1의 세 시점에서 양적으로(+) 유의미하게 탈비행과 연합되었음을 나타내었다. 즉, 비난확신이 높을수록 이 세 시기에 탈비행을 방해하고 있음을 보였다(모델4). 비난확신은 비행을 저지르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몹시 비난을 받을 것 같은 부정적 자아에 대한 두려움이기 때문에 비난확신이 클수록 더욱 탈비행하기가 어려워짐을 의미한다.

이상, 네 가지 단독모형 중 모델4(비난확신)가 가장 좋은 적합도를 보였다(RMSEA .012). 인지요인인 비난확신은 중2~고1에 이르기 까지 매 시점의 탈비행을 예측하는 단기효과에 적합한 단독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4  
동시효과모델 검증 결과

	모델1	모델2	모델3	모델4	모델5	모델6	모델7
<b>부모애착</b>							
부모애착1	-.208(.023) <sup>***</sup>				-.173(.023) <sup>***</sup>		-.181(.023) <sup>***</sup>
부모애착2	-.167(.017) <sup>***</sup>				-.125(.019) <sup>***</sup>		-.120(.020) <sup>***</sup>
부모애착3	-.142(.017) <sup>***</sup>				-.100(.018) <sup>***</sup>		-.111(.019) <sup>***</sup>
부모애착4	-.149(.020) <sup>***</sup>				-.101(.020) <sup>***</sup>		-.102(.020) <sup>***</sup>
<b>부모감독</b>							
부모감독1		-.141(.020) <sup>***</sup>			-.071(.020) <sup>***</sup>		-.080(.020) <sup>***</sup>
부모감독2		-.123(.015) <sup>***</sup>			-.075(.017) <sup>***</sup>		-.073(.018) <sup>***</sup>
부모감독3		-.113(.014) <sup>***</sup>			-.075(.016) <sup>***</sup>		-.083(.017) <sup>***</sup>
부모감독4		-.126(.018) <sup>***</sup>			-.083(.018) <sup>***</sup>		-.083(.018) <sup>***</sup>
<b>주도성</b>							
주도성1			-.007(.026)			-.011(.026)	.052(.026) <sup>**</sup>
주도성2			-.006(.019)			-.009(.020)	.024(.022)
주도성3			-.002(.023)			-.007(.010)	.035(.021)
주도성4			-.022(.018)			-.024(.023)	.012(.020)
<b>비난확신</b>							
비난확신1				.053(.016) <sup>**</sup>		.051(.016) <sup>**</sup>	.054(.016) <sup>***</sup>
비난확신2				.034(.011) <sup>**</sup>		.037(.013) <sup>**</sup>	.035(.013) <sup>**</sup>
비난확신3				.031(.011) <sup>**</sup>		.028(.012) <sup>**</sup>	.031(.013) <sup>**</sup>
비난확신4				.019(.014) <sup>**</sup>		.020(.014)	.021(.014)
<b>적합도</b>							
$\chi^2(p)$	71,176 <sup>***</sup>	102,823 <sup>***</sup>	21,885	19,833	3598,006 <sup>***</sup>	110,459 <sup>***</sup>	4442,411 <sup>***</sup>
df	13	13	13	13	41	41	145
$\chi^2/df$	5.475	7.909	1.683	1.526	87.756	2.694	30.637
CFI	.993	.987	.999	.999	.755	.990	.774
RMSEA	.036	.045	.014	.012	.159	.022	.093
95%CI RMSEA	.028-.044	.037-.053	.000-.024	.000-.023	.154-.163	.017-.027	.090-.095

Note. 모델1: 부모애착, 모델2: 부모감독, 모델3: 주도성, 모델4: 비난확신, 모델5: 부모애착+부모감독, 모델6: 주도성+비난확신, 모델7: 부모애착+부모감독+주도성+비난확신.  
( )안은 표준오차임. \*\*\* $p < .001$ , \*\* $p < .01$  \*\*\* $p < .05$

다음은 예측요인이 두 개씩 조합된 사회통제모형과 인지모형의 결과를 살펴보았다. 부모애착과 부모감독으로 조합된 사회통제모형(모델5)은 매우 좋지 않은 적합도를 나타내었고(RMSEA .15), 주도성과 비난확신을 조합한 인지모형(모델6)은 RMSEA .02의 좋은 적합도 지수를 보여 주었다. 특히, 모델6에서는 비난확신이 중2~고1의 시기에 탈비행에 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탈비행 예측요인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네 가지 예측요인을 모두 조합한 모델7(부모애착, 부모감독, 주도성, 비난확신)은 매우 낮은 적합도를 보여 주었다(RMSEA .09). 즉, 사회통제모형과 인지모형의 결합은 오히려 탈비행을 예측하는데 적절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주요한 이슈는 탈비행 단기효과의 예측요인 탐색과 주관적 요인과 객관적 요인 간 예측력의 비교에 있었으므로 조합모형에서의 최적모델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단독모형의 모델4(비난확신)와 조합모형의 모델6(인지모형) 두 개의 모델이 최적모델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중2~고2에 이르기 까지 비난확신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비행에서 벗어나는데 저해요소로 작용됨을 나타내며, 객관적 요인보다 주관적 요인이 탈비행의 단기효과에 더욱 우세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이 시기에 비행 가담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부모애착, 부모감독의 객관적 요인보다 주도성, 비난확신의 주관적 요인이 단기적인 탈비행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인지적 요인은 청소년이 비행에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짓는 우세한 예측요인이었고 그 중 비난확신이 탈비행의 단기효과를 나타내는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중2~고2의 시기에는 비난확신의 정도를 낮게 하여 인지요소를 강화시킴으로써 비행참여율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동시효과모델 검증 결과, 모델4( $\chi^2(13)=19.83, p>.001, RMSEA=.012, TLI=.996$ )와 모델6( $\chi^2(41)=110.45, p<.001, CFI=.990, RMSEA=.022$ )이 자료에 잘 부합되는 최적모델로 나타났다. 표 5에 최적모델의 성장요인 추정치가 제시되었다. 이차함수 변화모형에 비난확신을 적용한 모델4와 주도성, 비난확신을 적용한 모델6의 추정치 결과는 평균을 제외한 다른 값에서 동일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두 모델 모두 비난확신만 유의미하였기 때문에 평균에서의 미미한 차이를 보여 주었다. 그러나 모델6은 변화율과 이차항에서 평균의 개인차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표 5  
최적모델의 성장요인 추정치

최적모델	성장계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	
모델4 (비난확신)	평균	.62(.05)***	-.14(.07)*	.05(.02)*	
	변량	1.30(.07)***	.65(.08)***	.04(.01)***	
		초기치-변화율	-.66		
	상관	변화율-이차항	-.90.		
		초기치-이차항	.46		
모델6 (주도성+비난 확신)	평균	.66(.10)***	-.18(.13)	.07(.04)	
	변량	1.30(.07)***	.65(.08)***	.04(.01)***	
		초기치-변화율	.66***		
	상관	변화율-이차항	-.90***		
		초기치-이차항	.46***		

Note. ( )은 표준오차임. \*\*\* $p < .001$ , \*\* $p < .01$ , \* $p < .05$

## V. 논의 및 결론

사회통제요인이 탈비행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과 다른 요인과의 결합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모두 경험적 지지를 확보해 왔다. 즉, 부모애착, 결혼, 고용과 같은 사회통제요인은 탈비행 주효과라고 주장한 선행연구가 있는 반면, 사회통제요인 단독으로는 충분치 않기 때문에 다른 요인들과의 결합이 필요함을 나타낸 선행연구도 있다. 현재는 점차 사회통제요인 단독으로는 탈비행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지만 이러한 추세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제와 어떠한 요인과의 연합이 탈비행의 상승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지를 탐색한 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을 모두 고려한 동시효과모형을 적용하여 탈비행의 단기 예측요인을 탐색하였고 더욱 우세한 예측력을 갖는 모형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중기 청소년 탈비행의 추진 동력이 외부의 환경 변화로부터 기인되는지 개인의 내적 주관적 변화로부터 기인되는지, 또는 내·외적 변화가 모두 필요한지를 규명할 수 있는 실천적 함의가 있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2에서 고2까지 탈비행의 중단적 변화는 이차함수모형이 최적모델로 진행되었다. 즉, 비행여부는 선형으로 하강하면서 감소추세가 작아지는 이차함수 형태를 보였다. 비선형부분에서는 감소율의 증가폭이 미미해지는 전체적으로 비행참여율이 점차 감소하는 탈비행 정상과정을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모든 개인은 탈비행에 도달한다는 Gottfredson와 Hirschi(1990)연구와 청소년기에서 70살까지를 대상으로 한 Sampson와 Laub(2003)의 연구 등과 일치하였다. KYPS 자료를 활용한 이은주(2012)연구에서는 매년 비행여부 변화율의 평균이 -.78로 나타나 중2에서 고3에 이르는 5년 동안 비행유병율이 점차 감소하였음을 보였고 2차항 계수는 .28로 비행유병률의 감소폭이 점차 작아짐을 보여 탈비행 정상이론에 부합하였다. 이은주(2012) 연구에서도 이차함수 변화모형을 최적모델로 보고하였으나 5년 동안 11개의 비행항목을 측정해 본 점이 다르다. 그러나 Morizot와 LeBlanc(2007)연구에서는 15살부터 41살까지 매 시점 간을 8년 간격으로 설정하였고 선형모형이 최적모델로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긴 15살~23살까지를 첫 시점으로 구분하였으므로 청소년 시기의 민감한 변화과정을 세부적으로 드러내기 어려운 점이 있었다. 이차함수 모형의 초기치, 변화율, 이차항에서 모두 개인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에는 탈비행하고 있음을 나타내었다. 특히 개인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작아져서 비행 참여 정도의 폭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중2에는 비행 가담에 대한 호기심과 기회가 더욱 많기 때문에 비행에 참여하는 청소년이 넓게 분포된 반면, 고2에 이룰수록 점차 비행에 가담하는 청소년들만이 반복적으로 비행을 행하였음을 의미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발달적 성숙과 취업 및 진로에 대한 압박감 때문에 비행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여과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이차함수 모형에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들을 조합하여 동시효과모형을 적용시킨 결과, 단일요인으로는 비난확신, 조합모형으로는 인지모형이 탈비행의 단기효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개인 내적 주관적 요인이 탈비행의 단기효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비행적 사고 스타일 같은 인지요인은 탈비행 초기단계에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장기적인 영향은 확실치 않다고 주장한 Healy(2010)연구와 일치하였다. Healy(2010)의 연구에서는 비행자에게 인지기술을 습득시킨 것이 탈비행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인지행동 프로그램은 장기적으로 재범을 감소시키지 못하였지만 단기효과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

을 미쳤다는 Merrington와 Stanley(2004)의 주장과 일치하였다. 주관적 요인은 비행자들의 변하기 쉬운 속성이나 쉽게 변하려는 경향 때문에 탈비행의 장기효과에 강하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변화의 초기단계(즉, 특정시기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이에 비난확신의 인지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실패에 대한 포용력과 자신에 대한 신뢰감이 향상되도록 긍정적 사고 변화를 유도하는 것이 비행 참여를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해석된다.

셋째, 중2~고1의 세 시점에서 비난확신은 비행가담 여부를 결정하는데 효과적이었지만 주도성은 중요하지 않았다. 정체성 이론에서는 성취하고 싶은 선망적 자아(positive possible self)의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상상하는 것은 더 좋은 미래의 가능성을 제공하지만, 부정적인 선망적 자아는 현재 얼마나 나쁜 상태인지를 상기 시키며 점점 나빠지게 한다. 따라서 비난확신이 탈비행 저해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은 정체성 이론에서 자기패배감이나 좌절감이 부정적인 선망적 자아에 기여함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주도성은 유의미하지 않았는데 심리적 변화(예, 자존감, 태도, 성격)는 탈비행과 상관이 없다는 Lipsey(1995)의 주장처럼 인지요인이 더욱 탈비행에 유의미하다는 결과들은 아직도 혼재되어 있음을 반영한다.

마지막으로, 사회통제모형은 단독으로는 좋은 모형이었으나(모델5) 인지모형과 통합될 경우 적합도가 낮았다(모델7). 이것은 사회통제요인이 다른 요인과 결합 시 탈비행에 더욱 우세해 질 것이라는 예상과는 다른 의외의 결과를 보였다. 그러나 사회통제요인(부모애착, 부모감독)이 중2~고2까지 모든 시점에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낸 것을 감안해 볼 때 부모애착, 부모감독이 4년 동안의 지속적인 잠재효과를 나타낼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사회통제요인은 점진적이고 느린 탈비행 효과를 나타낸다는 주장(Morizot & LeBlanc, 2007)과 인지요인 보다 사회통제요인이 탈비행에 간접효과를 미친다는 Sampson과 Laub(2003)의 주장을 뒷받침하였다. 결국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은 통합 작용 보다 각기 별개로 작용하여 탈비행을 촉진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중기 청소년에는 부모애착, 부모감독의 지속적인 제공도 중요하지만 청소년 자신의 비난확신을 감소시키는 것이 초기 비행참여의 가능성을 억제하는 결정적 요인이라고 해석된다.

이상 논의한 결과를 종합하면, 중2~고2 각각의 발달시기에 부모감독, 부모애착 향상 전략보다 비난확신을 먼저 줄이는 탈비행 전략으로 차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내적 인지변화에 주력해서 실패자, 패배자로서의 부정적 자아감을 긍정적 자아감으로 변화시켜 준다. 현재의 실패감이 미래의 실패감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하는 인지변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실패한 자아에 대한 포용력과 신뢰감을 체험하고 미래의 원하는 자아에 대한 이미지 증진 등 인지기술 습득을 통한 긍정적 자아로의 변환을 모색하는 것이 중기 청소년의 탈비행 전략에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편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요인과 인지요인을 두 개씩 구성하였지만 관련된 다양한 예측요인들을 포함하여 내적·외적요인들 간의 적합모형을 탐색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청소년 발달시기별(초기 vs 중기 vs 후기) 단기효과와 장기효과가 달라지는지를 비교하는 것은 탈비행 시기별 정책수립에 필요한 후속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청소년 탈비행 관련 예측요인과 경로탐색 및 모형개발 등이 이루어지고 탈비행 설명적 대안들이 규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문헌

- 노성호 (2007). 청소년비행에 대한 생애과정이론과 잠재적 특성이론의 경험적 비교. **형사정책연구**, 18(4), 243-275.
- 이은주 (2012). 청소년비행의 발달궤적: 비행여부와 비행수준을 구분한 이원잠재성장 모델의 적용. **한국청소년연구**, 23(2), 185-215.
- 한영선 (2010). **소년범죄자의 범죄중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Arbuckle, J. L. (1996). Full information estimation in the presence of incomplete data. In G. A. Marcoulides, & R. E. Schumacker (Eds.), *Advance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sues and techniques*. Mahwah, NJ: Lawrence Erlbaum.
- Bandura, A. (1997). *Self-efficacy: The exercise of control*. New York: W. H. Freeman.
- Bandura, A. (2001). Social cognitive theory: An agentic perspective.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1-26.
- Blumstein, A., & Cohen, J. (1987). Characterizing criminal careers. *Science*, 237, 985-991.
- Bottoms, A., Shapland, J., Costello, A., Holmens, D., & Muir, G. (2004). Towards desistance: Theoretical underpinnings for an empirical study.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 368-389.
- Burnett, R., & Maruna, S. (2004). So "Prison Works" does It? The criminal careers of 130 men released from prison under home secretary, michael howard. *Howard Journal of Criminal Justice*, 43(4), 390-405.
- Evans, T. D., Cullen, F. T., Burton, V. S., Dunaway, R. G., & Benson, M. L. (1997). The social consequences of self-control: Testing the general theory of crime. *Criminology*, 35, 475-504.
- Flynn, N. (2010). Criminal desistance in context (Ed.), *Space, place and desistance from crime*(pp.15-31). Abingdon; NewYork; Willan.
- Giordano, P., Cernkovich, S., & Rudolph, J. (2002). Gender, crime and desistance: Toward a theory of cognitive transformatio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7(4), 990-1064.

- Gunnison, E., & Mazerolle, P. (2007). Desistance from serious and not so serious crime: A comparison of psychosocial risk factors. *Criminal Justice Studies*, 20(3), 231-252.
- Gottfredson, M. R., & Hirschi, T. (1990). *A general theory of crime*.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 Healy, D. (2010). The dynamics of desistance: Charting pathways through change. *Willan*, 20-35.
- Hindelang, M. J., Hirschi, T., & Weiss, J. (1981). *Measuring delinquency*. Beverly Hills, CA: Sage.
- Hirschi, T. (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 Hirschi, T., & Gottfredson, M. R. (1983). Age and explanation of crim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89, 552-584.
- Hu, L., & Bentler, P. M. (1999). Cutoff criteria for fit indexes in covariance structure analysis: Conventional criteria versus new alternative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6, 1-55.
- Hussong, A. M., Curran, P. J., Moffitt, T. E., Caspi, A., & Carrig, M. M. (2004). Substance abuse hinders desistance young adults antisocial behavior.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6, 1029-1046.
- Jeffrey, S. (2000). Factors related to the desistance of crime in a longitudinal sampl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Arizona University, USA.
- Kazemian, L. (2007). Desistance from crime: Theoretical, empirical, methodological, and policy consideration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1), 5-27.
- Laub, J. H., & Sampson, R. J. (2001). *Shared beginnings, divergent lives: Delinquents boys to age 70*.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Le Blanc, M. (1993). Late adolescence deceleration of criminal activity and development of self-and social control. *Studies on Crime Prevention*, 2, 51-68.
- Le Blanc, M., & Loeber, R. (1998). Developmental criminology updated. In M. Tonry (Ed.), *Crime and justice*(Vol.23, pp.115-198).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Lipsey, M. (1995). What do we learn from 400 studies on the effectiveness of treatment with juvenile delinquents?. In J. McGuire (Ed.), *What Works: Reducing Re-offending: Guidelines from Research and Practice*, Chichester: Wiley.
- Lober, R., & Le Blanc, M. (1990). Toward a developmental criminology. In M. Tonry, & N. Morris (Eds.), *Crime and Justice*(pp.375-473).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 Ludwig, K., & Pittman, J. (1999). Adolescent social values & self-efficacy in relation to delinquency: Risky sexual behaviour and drug use. *Youth and Society*, 30(4), 461-482.
- Maruna, S., & Farrall, S. (2004). Desistance from crime: A theoretical reformulation. *Kölnner Zeitschrift für Soziologie und Sozialpsychologie*, 43, 171-194.
- Mischkowitz, R. (1994). Desistance from a delinquent way of life?. In E. G. M. Weitekamp, & H. J. Kerner (Eds.), *Cross-national longitudinal research on human development and criminal behavior*(pp. 303-327).
- Merington, S., & Stanley, S. (2004). What works: Revisiting the evidence in England and Wales. *Probation Journal*, 51(1), 7-20.
- Morizot, J., & LeBlanc, M. (2007). Behavioral, self, and social control predictors of desistance from crime: A test of launch and contemporaneous effect models. *Journal of Contemporary Criminal Justice*, 23(1), 50-71.
- Mulvey, E. P., Steinberg, L., Fagan, J., Cauffman, E., Piquero, A. R., & Chassin, L. (2004). Theory and research on desistance from antisocial activity among serious adolescent offenders. *Youth Violence and Juvenile*, 2, 213-236.
- Oyserman, D., & Markus, H. (1990). Possible selv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9(1), 112-125.
- Paternoster, R., & Bushway, S. (2009). Desistance and the 'feared self': Toward an identity theory of criminal desistance.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0091-4169.
- Piquero, A., Blumstein, A., Brame, R., Haapenen, R., Mulvey, E., & Nagin, D.

- (2001). Assessing the impact of exposure time and incapacitation on longitudinal trajectories of criminal offending.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6(1), 54-57.
- Piquero, A. R., Brame, R., Mazerolle, P., & Haapanen, R. S. (2002). Crime in emerging adulthood. *Criminology*, 40, 137-170.
- Sampson, R. J., & Laub, J. H. (1993). *Crime in the making: Pathways and turning points through lif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 Sampson, R. J., & Laub, J. H. (2003). Life course desisters? Trajectories of crime among delinquent boys followed to age 70. *Criminology*, 41, 555-592.
- Schroeder, R. D. (2005). *Stuck in a 'Hurt Locker': Toward an integrated theoretical framework on desistance process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owling Green State University, USA.
- Ward, T., Fon, C., Hudson, S. M., & McCormack, J. (1998). A descriptive model of dysfunctional cognitions in child molesters.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13, 129-155.
- Walters, G. D. (1995). The psychological inventory of criminal thinking styles, part: Reliability and preliminary validity. *Criminal Justice and Behaviour*, 22(3), 307-325.
- Walters, G. D. (2002). Developmental trajectories, transitions, and nonlinear dynamical systems: A model of crime deceleration and desistance. *International Journal of Offender Therapy and Comparative Criminology*, 46, 30-44.
- Warr, M. (1998). Life-course transitions and desistance from crime. *Criminology*, 36, 183-216.
- Wilson, J. Q., & Herrnstein, R. J. (1985). *Crime and human nature: The definitive study of the causes of crime*. New York: Simon & Schuster.

## ABSTRACT

### A test of short-term predictors of desistance from delinquent behaviors in middle adolescents

Kim, Geung-Sook\* · Nam, Hyun-Woo\*\*

The aim of this research was to explore short-term predictors which lead to desistance from delinquent behaviors in the normative process, and to investigate the causal order between social-control and cognitive factors. Utilizing a sample of 3,449 eighth-graders who were followed over 4 years, latent growth modeling was used to test the contemporaneous effect models, in order to account for the short-term effects of desistance and comparing the best models among the factors.

The findings indicated that there was a quadratic decrease in the versatility of delinquent behaviors. The contemporaneous effect models revealed that blame certainty hindered the desistance for the eighth to eleventh-graders, and cognitive model(leading, blame certainty) helped reveal more than the social-control model(parental attachment, parental supervision).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 positive mindset guides delinquent behaviors towards a more positive social situation and social events helped them to cope with difficulties. This in turn reduces the likelihood of repeated delinquency.

Key Words : desistance, social-control factors, cognitive factors, latent growth modeling, contemporaneous effect models

투고일 : 9월 10일, 심사일 : 11월 5일, 심사완료일 : 11월 15일

---

\* Asan Youth Counseling Welfare Center

\*\* Soonchunhyang University